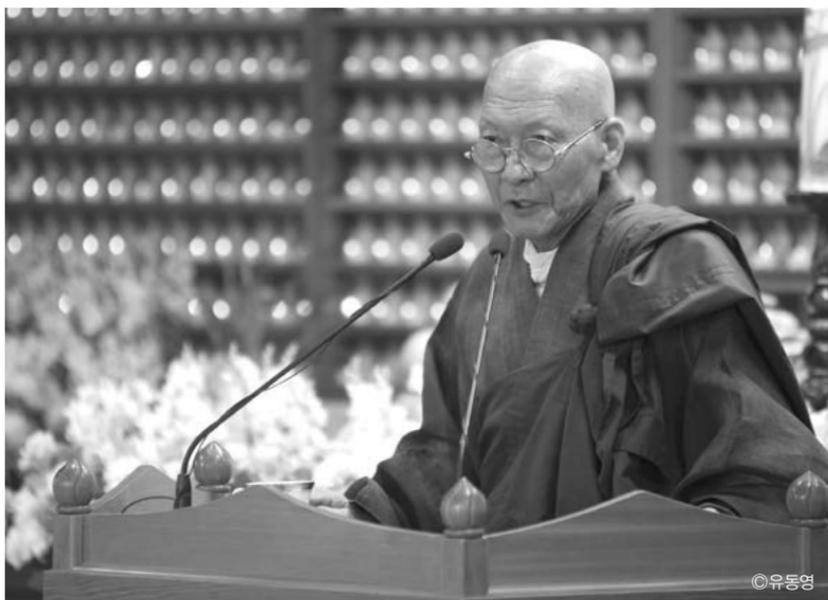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20 . 5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말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말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말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말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말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0 / 5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특별판

중 淨 契 契 入 入 삶

| | | |
|----------------------|----|-------------------------|
| 다시 읽는 산방한담 | 04 | 마하트마 간디의 종교 |
| 일기일회 | 10 |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시는 날 |
| 종교적인 삶 | 21 | 종교적인 삶 |
| 법정 스님의 숨결 | 25 | 쓰던 말을 버리고 |
| 법정 스님이 두고 간 이야기 | 28 | 작은 등불 하나 |
| 법정 스님의 산증 편지 | 32 |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보다 더한 것 |
| 법정 마음의 온도 | 34 | 무형의 자산, 친절 |
| 자비의 등 안내 | 36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 전시회 안내 | 38 |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
|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 40 |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
| 길상사 소식 | 48 | |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20년 5월 1일 발행 / 통권 303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마하트마 간디의 종교

글 • 법 정(法 頂)

편집자의 요구는 ‘기독교 밖에서 본 예수’를 써 달라고 하지만 나의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감당하기가 거북스럽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이지만,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평가할 만큼 예수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역사상의 한 인물을,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기 보다는 어마어마한 신의 아들로 추앙받는 인물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이방인의 처지로 보아 실례를 범할 위험이 따른다. 다른 하나의 이유로는, 밖에서 봐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실체다. 산은 저 들에서 바라봐야 더 잘 보인다는 말에는 수사학적인 거짓이 섞여

있다. 산에 들어가 살아보지 않고서는, 또한 몸소 산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산의 정체를 알 수 없다.

인류 역사상의 한 거인을 밖에서 보고 이해하려는 것은 마치 눈 어두운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을 더듬어 보고 그 실체를 파악하려는 어리석음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제를 달리하기로 했다. 지혜로운 인도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친숙한 마하트마 간디의 눈을 통해 알아볼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야는 반드시 타산지식이 될 줄 믿는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간디가 귀의한 종교는 이지적이고도 윤리적인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이성에 들어맞지 않는 신조나 자기의 양심이 긍정하지 않는 명령은 결코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았다. 관념적인 두뇌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 존재를 기울여 진정으로 신을 믿는다면, 인종이나 계급 또는 국가나 종교의 차별을 넘어서 만인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간디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내 행동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류애에 근원을 두고 있다.”

“나는 친척과 타인, 내국인과 외국인, 백인과 유색인, 이슬람교도나 배화교도 또는 기독교도나 유대교도를 가릴 것 없이, 힌두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런 차별을 둘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제일이고 남이 믿는 종교를 멸시하거나 거부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종교도 바로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강에만 고여 있다면 언젠가 썩게 마련이다. 흘러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갈 때 강물은 비로소 영원히 산다.

표현을 달리하자면, 종파적인 종교에만 머물러 안주하는 사람은 참된 종교를 알 수 없다. 종파적인 우덩이를 넘어 보편적인 종교의 바다로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고서는 참된 종교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다.

간디는 다시 말한다.

“내가 말하는 종교는 형식적이지

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인간을 신에게 향하게 한다.”

물론 간디가 믿는 신은 유일신이 아니다. 그에게 신과 진리는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다. 우리들은 종교의 형식이나 습관에 의해 그 종교가 본래 지니고 있던 신선함과 명쾌함을 잃는 수가 많다. 이런 일은 그릇된 믿음에서 오는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종교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과오일 것이다.

“나는 힌두교를 어떤 종교보다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종교는 아니다. 내가 말하는 종교란, 힌두교를 초월하여 인간의 성품까지도 바꾸어, 사람이 진리로부터 떠날 수 없도록 굳게 결속하고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일이다.”

그는 자기가 믿는 힌두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서도 자기 종교에 대한 우월성에 안주함 없이 보편적인 진리를 실현하는 데 종교의 의미를 두려고 했다.

어설픈 해설보다는 살아서 메아리치는 그의 육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모든 종교는 한 장소에 모이는 각각 다른 길이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따로따로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달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실 종교는 인간의 수만큼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자기 종교의 진수를 이해한 사람은 다른 종교의 진수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한, 어떤 종교든 그 나름의 독자적인 상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상징이 맹목적인 숭배물이 되거나 다른 종교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는 연장으로 쓰인다면, 그런 것은 버리는 것이 좋다.”

“오랜 연구와 체험을 통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모든 종교는 진실하다. 둘째, 모든 종교에는 얼마쯤의 오류가 있다. 셋째, 모든 종교가 내게는 나 자신이 믿는 힌두교와 거의 같을 만큼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낯선 사람일지라도 가까운 친구처럼 사랑스럽게 대해야 한다. 나는 나 자신의 신앙과 다름없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경의를 표한다. 따라서 개종이란 내게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신에 대한 인식은 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책은 기껏해야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때로는 방해물이 되는 수가 있다.”

끝으로 한 구절만 더 인용해 보자. 이것은 간디가 기독교를 보는 눈일 것도 같다.

“우리들의 말로 하기보다는 생활을 통해 대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신은 1천 9백 년 전에만 십자가를 졌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지고 있고 또 날마다 죽으면서 소생(부활)한다. 2천 년 전에 죽은 역사상의 신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덧없는 위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상의 신을 말하기보다는 오늘 살아 있는 인간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간디의 비폭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그의 비폭력에 대한 신념은 그의 종교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종교와 무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랫동안 기도를 통한 수련의 은혜로 이제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다. 만인이 동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마다 타인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인의 복리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만인을 결합시키는 밧줄이다. 설사 불구대천의 원수 사이라 할 지라도 이 밧줄을 끊는 것은 그 신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일이다. 아무리 악독한 사람에게도 인간성은 있다.” 〈마하바라타〉

이와 같은 인도의 전통 정신에서 모든 증오와 갈등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비폭력이 나온 것이다. 간디는 자신을 몽상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상주의자라고 말한다.

“비폭력은 인간의 법이고, 폭력은 짐승의 법이다. 짐승에게는 정신은 잠들고 완력만이 법인데 대해, 인간의 존엄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한층 높은 법에 따를 것을 바란다.”

그러므로 비폭력은 단순히 종교적인 성자의 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을 위해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디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비폭력의 원리를 개인적

인 데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칭송받는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것도 인도의 독립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아래 비폭력을 실험하고 그 보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친구들은 정치나 세속사에 진리와 비폭력을 들이밀 여지는 없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것이 개인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일상생활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찍부터 있어 온 내 실험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

“종교를 떠난 정치는 더럽혀진 것이다. 그런 정치는 기피해야 한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부침하는 교활한 현상이다. 그러나 종교는 영원한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치가 눈앞의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진

리를 등질 때, 그것은 더럽혀진 것으로 배격해야 한다는 간디의 말은, 두 고두고 음미할 가치가 있다.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에 맞아 잿더미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간디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그는 “세계가 이제 비폭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류는 마침내 스스로 멸망하고 말거야.”라고 독백한다. 1976

·발췌 : 「서 있는 사람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회원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 펼쳐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구축하여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www.clean94.or.kr)나 사무국으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기부자께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라 부처님 오시는 날

글 • 법 정(法 頂)

길상사가 위치한 성북동에는 외국 공관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부처님오신 날이면 근처 많은 외국인들이 연등 구경을 하러 절을 찾는다. 올해는 3천여 개의 연등이 걸렸다. 한국 조각계의 거장이며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선생이 2000년 4월에 화강암으로 제작한 마리아상을 닮은 관세음보살상도 근처 가톨릭 수도원의 사제와 수녀들을 자주 초대한다. 이날 스님은 법문을 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강원도 오두막에서 어두운 새벽에 출발해 먼 길을 왔다. 절마당에서 마주친 벽안의 서양인 여성이 스님에게 합장하며 인사를 건넸다. “Happy Buddha's birthday! (부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러자

스님도 합장하며 그 여성에게 화답했다. “Happy your birthday!(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오신 이날이 있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도 사찰에 올 일이 없고 또 여러분도 절에 다닐 인연이 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남이지만 ‘오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이 없다면 이런 절도 없고, 이런 자리도 마련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이 있었기

에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 함께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에서 부처님 같이 뛰어난 성인이 계시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부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노자, 장자 등 인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스승들이 안계셨다면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찍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현재의 나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에게 의지처가 있다는 것, 귀의처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끝없이 헤맬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갖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 덕분에 그릇된 길에서 벗어

나 바른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인연이 다행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이기 때문에 제 말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전을 몇 구절 함께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는 경을 한데 모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절이 기원정사(祇園精舍)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안거를 했고, <숫타니파타>를 비롯해 근본 경전인 <아함경>과 대승경전(부처 사후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편찬된 경전들)인 <금강경>을 이 기원정사에서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으뜸가는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인간 삶에 으뜸가는 행복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숫타니파타>의 ‘ 으뜸가는 행복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에서 몇 구절 뽑아 같이 읽어 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고
어진 사람과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런 경전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리석은 요소는 없는가? 나는 선한 인간의 대열에 들 수 있는가?

인간은 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이슬비 속에서 서서히 옷이 젖듯이 좋은 친구는 좋은

친구대로, 또 나쁜 친구는 나쁜 친구대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관계 속에서 거듭거듭 형성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어리석어집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술꾼과 어울리면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도 지혜로워집니다.

삶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존경의 요소가 움트는 일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는 인생은 삭막한 인생입니다.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세우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몫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남의 자리를 훔내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삶이 소멸됩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배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 한 마디, 눈빛 하나도 공덕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맑은 눈빛, 다정한 얼굴, 부드러운 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원은 삶의 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않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원의 힘이 약하면 작은 바람에도 휩쓸려 넘어갑니다. 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며 이웃과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큰 원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욕구라 해도 개인적인 것은 욕심이고, 공동체적이고 함께 누릴 수 있

는 것은 원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도일체고역(度一切苦厄, 일체의 고난과 재난을 건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모든 중생의 고통과 재난을 건넌다는 것입니다. 건넌다는 말은 곧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자기 자신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차안에서 피안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을 벗어난 세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헌신함으로써 나 자신도 구제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원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 식사하는 일조차 없습니다. 우리말의 '식구'는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술밥을 먹는 사람들이 한술밥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부부가 한집에서 따로 밥을 해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은 차디찬 가옥이지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따뜻한 곳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밖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치유하는 장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해체된 가옥엔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으며, 더 이상 설 곳이 아닙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말년에 외롭게 지냈기 때문에 동양의 대가족제도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데 정작 우리는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뿔뿔히 흩어져 지냅니다. 어버이날에나 한 번씩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어쩌다 외식이나 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이루어진 가족 단위와는 다르겠지만 현대사회라고 해서 가정의 틀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일에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 다스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 그것을 무시하고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일에 질서가 없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에게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하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배푸는 것을 수직관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살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까? 부모와 사회와 친구에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무수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으며 삽니다. 그런 도리를 안다면 스스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순간순간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길, 인간의 도리에 맞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비난받지 않게 처신하라.’ 사람이 인색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이

웃과 나누어 갖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면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습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맑히려고 따로 노력할 것이 없이, 악한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하면 스스로 마음이 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남과 나누어 가질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 상태가 바로 맑아진 상태입니다.

악을 싫어해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덕행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지만, 적당을 넘어서면 술이 술을 불려서

취하게 합니다. 지금 병원마다 간이 망가져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평생 쓸 장기를 독한 알코올에 늘 담아 두었기 때문에 간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갖고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데, 스스로 술에다 정신을 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덕행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과 나누어 가질 때 덕이 쌓입니다. 그때 겹겹으로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이미 열려 있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열려 있는 세상은 나와 무연無緣합니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삶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 상황 탓에, 세상이 잘못되고 누

군가가 나빠서 내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답게 삶을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맑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누구 탓을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 내 마음이 구겨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립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뒤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언론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 의식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를 존경하거나 겸손을 지니는 미덕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갖든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옛날 우리가 흠을 가까이하고 살던 농경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삶의 질은 부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그 인생의 대차대조표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겠습니까? 집, 재산, 자동차, 명예, 다 헛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세

상과 작별할지 모릅니다.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다음 순간을 누가 압니까? 과연 내가 생을 살아오면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허망하고, 한때 걸쳤던 옷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나눔, 알게 모르게 쌓은 음덕, 이것만이 내 생의 잔고로서 남습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전통적인 인도 사람들 생각에 의하면 내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종자가 됩니다. 내생에 내가 받아 쓸 씨앗입니다.

‘때로는 가르침을 들으라.’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관념화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눈뜬 사람들, 지혜로운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자기 삶을 거듭 충전하고 새롭게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근심이 없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세상의 복잡한 일에 부딪쳐도 마음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평소에 세운 원과 나누어 가진 덕행의 잔고가 있기에 세상사에 부딪쳐도 중심을 잃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지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정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것이 불타 석가모니의 행복론입니다. 부처님은 <숫타니파타>의 ‘천한 사람’ 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승려가 한 집에 걸식을 하려고 막 들어섭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화를 잔뜩 내면서 “이 까까 중놈아, 이 엉터리 사문아!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 있거라, 이 천한 놈아!” 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대승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초기 경전이어서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이 어떤 것이 천한 사람인가를 낱낱이 설명한 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날 때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는 신분의 벽이 높은 사회였습니다. 2,500년 전의 세상입니다. 바라문이니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니 낄 때부터 가문에 의해 주어진 세습화된 신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낄 때부터 귀족과 천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귀족도 되고 천민도 될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을 눈뜬 사람, 널리 보시는 분, 깨달은 사람, 지혜의 눈이 열린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부처님을 가리켜 '양족존兩足尊'이라고 합니다. 두 발 가진 생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부처님 오신날이 과거완료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날'이라는 것은 이미 오셨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엔 종교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오신 날'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오신 날'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시는 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신 날'은 과거완료형이고 '오시는 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처의 씨앗을,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활짝 열리면 저마다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길을 가리키는 스승입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고 꽃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각자 이 시대 부처의 분신

임을 자각하고 자신이 부처의 한 화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날마다 '오시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초록이 눈부신 이 좋은 날, 침묵의 대지에서 저마다 살아 있음을 꽃과 입으로 마음껏 펼쳐 보이는 이 계절,

다들 복 받으십시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부처가 되어 한뭉씩 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법문 -

• 발체 : 「일기일회」



종교적인 삶

글·법 정(法 頂)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무엇인가? 불교도 기독교도, 혹은 유대교도 회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자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다'는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사랑하다'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사는, 이웃과 남을 '돕다'입니다. 자신에 대한 염려에 앞서 남을 염려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때, 인간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면 아직 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평생 많은 위대한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자비'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의 실천이 있었기에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주제로 삼았다면 불교는 종교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모든 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종교는 인간 중심의 사랑에 그칩니다. 이 세상은 인간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만물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인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우주적인 조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

달라이 라마는 불교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친절한 마음'이 곧 불교라고 말합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몇 마디 말이 지구를 행복하게 합니다. 지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 행복감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

종교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친절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는 대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배워 오는 가르침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종교를 믿고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진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신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행이 없고 종교적인 이론만 머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색의 이론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절과 교회에 나가고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회교이든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는 항상 대립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내 절 네 절 따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집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을 의지했든 부처님을 의지했든 혹은 예언자를 의지했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기 실현의 길이고, 형성의 길입니다. 부처는 단지 먼저 이루어진 인격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온전한 인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자기 탐구의 종교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며, 자기 탐구의 길에서 수많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타인과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강조한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라는 뜻에서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해 타인과 세상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개체에서 전체로의 변신,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존재를 찾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눈입니다.

*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처님? 신? 하느님? 이것은 또 얼마나 관념적이고 개념화된 이름입니까. 이런 메마른 관념과 개념에 얽매어, 살아 있는 참 부처님과 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관념화되고 개념화된 ‘머리의 종교’는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삶이 약동하는 ‘가슴의 종교’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과 신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모두가 허상입니다.

*

종교는 그럴듯한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음 쓰는 일과 일상적인 행동 안에 있습니다.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여는 일이 곧 자비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의 실현을 통해서 지혜도 자라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것만으로 지혜가 갑자기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지 현실은 아닙니다. 중생계가 남아 있는 한 완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

진정한 종교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교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쓰던 말을 버리고

글 • 변택주

불교는 자비로운 종교, 기독교는 사랑스런 종교라고 말한다. 자비와 사랑은 다르지 않다. 자비 '자慈'는 우리말로 '사랑'으로 새긴다. 그런데 이 말을 그저 추상명사 사랑으로만 이해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종적이 막연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慈는 팔리어 '우정Mitts'에서 온 말이다.

우정은 무엇인가? 평등이자 연대, 함께함이다. 어우렁더우렁 행복한 관계에서 나오는 순정한 마음이다. '비悲'는 무엇인가? 나 아닌 목숨붙이 불행을 진심으로 아파하는 것이다.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사랑해야 할 원수마저도 없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다. 이 자비심 바탕 위에서 부처님은 자신이 이제껏 써온 익숙한 말을 버리고 서민들이 흔하게 쓰는 말로 말씀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이 자신이 쓰던 상류사회 말을 버리고 듣는 사람 말로 설법한 뜻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중도'다. 부처님은 중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내 가르침 내 진리는 누구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고, 실현되며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진리라 하더라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다. 이해할 수 없고, 실현될 수 없고, 증

명할 수 없는 것은 내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중도라는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말은 지금 여기 현장·주체·역동성을 갖고 있는 개념이다.

지금 여기 내 삶 주체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다. 그러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 목숨이다. 지금 여기 내 목숨이 살아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의미가 없다. 내 목숨이 살아 있을 때만 이 세상은 내게 존재 의미가 있다. 지금 여기 내 목숨이 살아 있을 때만 우리는 정치도, 종교 활동도, 사랑도 할 수 있고, 꿈도 가질 수 있고, 또는 자유·정의·평화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가치는 내 목숨이다. 어떤 것도 내 목숨보다 더 앞서는 가치는 없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진보와 보수, 기독교, 불교, 자본가, 노동자,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뒤돌아서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물을 것 없이 여기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 서민들 말로 법을 설한 것이다. 나보다 네게 맞춘 맞춤서비스이다.

법정 스님은 운허 스님과 함께 불교 사전을 편찬하시고, 동국역경원을 개설해 서울 봉은사에 주석하시면서 대장경 번역을 하고, 초기 경전인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을 고운 우리말로 누구나 정겹게 시를 대하듯이 쉽고 외울 수 있도록 번역을 하셨다. 그와 함께 대중 매체에 기고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누구나 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쓰셨다. 이 모두가 해인사 시절 어느 여인이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법정 스님에게 대장경

판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데서 비롯된다. 스님이 장경각에서 내려오면서 보지 못했느냐고 되물자, ‘아, 그 빨래판 같은 거요?’ 했다. 그때 스님은 빨래판에 새겨진 진리를 누구나 마주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대자비심을 일으키셨다.

스님 법문을 들어 본 사람이나 스님 책을 읽은 이들은 다 알다시피 스님은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법문을 하신다. 그런 스님 뜻을 받들어 길상사 법회에 동참을 해 본 이들이면 아는 일이지만, 길상사에서는 예불을 할 때, 우리말로 된 천수경으로 예불을 올리고 대개 예불의식을 우리말로 집전한다. 젊은 법정 스님 깨달음이 수많은 이들에게 어렵다고 여겨지던 불교가 쉽사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자리 잡게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법정 스님이 당신들이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는 쓰던 말을 버리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전했다. ‘빨셈’ 그것은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빼기였다. 모든 이들이 내 방식을 고수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외쳐댈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법정 스님, 그리고 수많은 붓다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네 방식, 네 말로 중생 귀를 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있다.

번역주 • 아둔하고 미혹한 탓에 좀 슬기로워지라고 법정 스님께서 지광(智光)이란 법명을 지어주셨다. 1998년부터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고 길상사 법회 진행을 맡았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 책을 읽고 뜻을 나누고자,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되면 ‘꼬마평화도서관’을 열기 위해 나라 곳곳을 다니고 있다.

작은 등불 하나

글 • 고 현

살다 보면 예감이 적중할 때가 있다. 서울 출장길에 막연한 기대로 법련사에 들렀더니 법정 스님이 와계셨다. 반갑게 친견 드리고 주지인 청학 스님과 차담을 나눈 자리에서 스님께서 불쑥 한 말씀 꺼내셨다.

“40년 동안 속가에 신세만 지고 살다 보니 무언가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만약 불교가 중심이 된 ‘사회 모임’ 하나 만들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10여 년을 뵈다 보니 번거롭고 머리 무서운 일은 일부러 피하시는 성품인데 이 무슨 뜻밖의 말씀일까.

“모임의 명칭은 ‘나누는 기쁨’으로 하고 싶어요. 삭막한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산다. 특히 어려운 삶을 사는 이웃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되는가 말입니다.”

모임의 명칭도 정해졌고 그 성격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어제오늘 생각이 아닌 듯했다. 스님께서 시작하신다면 기꺼이 동참하겠다 말씀드리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다.

2년이 지났다. 스님은 세 번째 ‘버리고 떠나기’를 시도하여 이미 불일암을 떠나 강원도로 옮기셨고, 나 역시 일 년 동안 연구 교수로 미국에 나가 있다 돌아왔다.

어느 날 스님께서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불일암 선언 때 이미 마음 각오는 해두었지만 스님께서 정말로 나를 찾으실 때도 있었구나 싶었다. 1993년 8월, 수학여행 떠나 들뜬 소년 같은 마음으로 스님을 뵈었다.

“내가 예전에 모임 하나 만들고 싶다는 말 기억하시지요?”

“나누는 기쁨’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내용과 성격은 그대로인데 명칭은 ‘맑고 향기롭게’로 바꿨습니다. ‘나누는 기쁨’도 오래도록 생각해왔는데 의미전달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보니 바꾸게 되었는데, 왜 느낌이 별로인가요?”

“아닙니다, 스님. 다만 표어나 슬로건에 주어가 빠지면 호소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바로 그거예요. 생략된 주어 대신 어떤 주어를 앞에 붙여도 뜻이 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들의 ‘정신을’ 맑고 향기롭게,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들의 ‘환경을’ 맑고 향기롭게, 어떤 주어를 앞에 붙여도 뜻이 통하는,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어내는 연꽃의 생리와 아름다움을 접목시켜, ‘맑고’는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맑히고, ‘향기롭게’는 바깥세상을 향한 자비행의 실천으로.”

나도 모르게 무릎을 치며 탄성을 내고 있었다. 감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아, 그랬던가…… 예전 ‘나누는 기쁨’을 말씀하실 때는 솔직히 이런 전율과 감동까지는 닿지 않았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가슴속에 담고 계셨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유하고 고심하셨을까. 강원도로 옮기자마자 연꽃 한 송이 피워내셨구나. 내게 설명하시는 스님의 열정과 눈빛에서 가슴이 절절히 아려왔다.

“고 교수! 스티커로 쓸 수 있는 연꽃 하나 그려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타는 듯한 거인의 눈빛 앞에 나는 이미 포로가 되어 있었다.

“스님! 열 번이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짧은 화상(畵想)으로 스님의 깊고 넓은 사유를 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각박한 세파에 뿌리박고 살아도, 맑고 향기로운 연꽃 한번 피워보자는 우리들의 소박한 소망, 괜찮지 않습니까?”

힘든 자, 없는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들을 위해 작은 등불 하나 켜보자는 스님의 뜨거운 발원, 거대한 무게로 조여들었다.

“스님, 연꽃 캐릭터는 비록 작은 그림과 글씨로 이루어지지만 주목율과 집중도를 매우 높여야 하는 일러스트 작업입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좁혀가자면, 그림 한두 점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서…… 스님, 한 달에 두 번쯤 서울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맑고 향기롭게 얼굴을 그리는 상징물입니다. 고 교수가 도와만 준다면 나아말로 열 번이라도 나와야지요.”

결에서 스님과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청학 스님께서 한마디 거드셨다.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제 방을 기꺼이 시주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맑고 향기롭게 웃었다.

나는 심야에 하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시리도록 맑은 정신으로 전국의 수많은 연꽃들을 채집하고 있었다.

새벽이슬 속에 수줍게 피어난 청초한 연꽃, 하염없이 바람에 나부끼며 머리를 풀어헤친 연꽃, 이제 갓 눈을 뜬 채 커다란 잎 사이에 감추어진 연꽃, 비바람 태풍에 몸부림치며 흐느끼는 연꽃, 호수의 모든 연을 대표하듯 의젓하게 피어난 연꽃, 이제 몇 잎 남아 있지 않은 인연을 접어가는 연꽃…… 내 마음은 이미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되어 꽃들에게 합장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내 생애에 또 하나의 열락(悅樂)으로 다가올 것 같다.

고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되어 우천(又泉)이란 수계명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불자의 삶을 살고 있다. '불교미술 현대화, 불교디자인 개척화'라는 화두를 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등으로 활동하면서 일러스트, 단청, 탕화, 디자인 등 국내외에 발표한 200여 회의 작품이 모두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장과 디자인 대학원 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광주·전남모임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캐릭터 매뉴얼 북 연구를 통하여 모든 디자인 작업을 체계화 하였다.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보다 더한 것

글 • 법 정(法 頂)

9월 3일에 보내 준 네 글 잘 받았다. 지금 네가 체험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마치 지난날 내 자취를 되풀이하는 것만 같아 심히 서글프다.

그러나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운명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하는 철학을 갖는 것도 현명한 생활 태도일지 모른다. 말하자면 나는 이처럼 인생에 대해서 남이 겪지 못한 풍부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말이다. 그런 때 나는 베토벤에게서 혹은 그 밖의 훌륭한 인격들의 생애에서 위안들을 받곤 했었다.

‘괴로움을 뚫고 기쁨으로!’라는 베토벤의 철학. 고난 속에서도 훌륭한 음악을 탄생시킨 베토벤! 나의 젊은 날의 스승이여! 책장 속에 로맹 로랑이 쓴 <베토벤의 생애>가 있을 것이다. 아직 안 읽었다면 읽어 보아라. 재독(再讀)도 좋다.

그래, 좋다. 크리스찬! 사람은 종교적인 생활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생활의 정화가 올 것이기에 어릴 적부터 예수 씨와 너는 인연이 깊었으니까. 아무것도 신앙하지 않는 것보다는 얼마나 장한 일이나. 영세를 받아도 좋고, 세례를 받아도 좋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우주 주인은 항상

‘나(자기)’라는 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런 비판 정신도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인간 성장에 오히려 큰 해독을 끼칠 우려성이 없지도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은, 어떤 신격화 혹은 이상화된 대상에서가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태도가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미신보다 더한 것이다.

불가에서는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인간의 모양이 잘났다는 데서가 아니라 내가 닮아(수행해서) 깨치면 똑같은 부처가 된다는 말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하는 구경(究竟, 지극한 깨달음) 목적이 내가 깨달아서 고해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견지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활의 주체는 항상 ‘나’다.

전 신문에서 목포 지방의 수해가 심했다는 걸 보고 저욕이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들 지내는지.

해제(解制)도 했으니 걸망 바람도 쏘일 겸 전라도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직은 막연하다. 인연이 닿으면 갈 길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 동안 어테 좀 다녀와야겠다. 너무 단조해서 권태가 달라 붙는다.

잘 있거라.

산승 법정 합장, 1958년 9월 19일

* 발췌 :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 책임는섬

무형의 자산, 친절

글 • 김옥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 법정 -

친절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다. 마치 무더운 여름 날 마시는 시원한 샘물 같고, 사랑의 향기를 품고 있어 기분 좋은 향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를 바란다.

그런 까닭에 친절은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친절 하나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 메이커, 친절 하나로 필라델피아 산골의 호텔 직원에서 세계 최고인 월도프 아리아호텔의 사장이 된 조지 C. 볼트, 호텔 벨보이에서 힐튼 호텔을 세워 호텔 왕이 된 콘라드 힐튼은 친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친절한 마음가짐의 원리, 타인에 대한 존경은 처세법의 제일 조건이다.
이는 스위스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앙리 프레데릭 아미엘이 한 말이다.
아미엘의 말처럼 친절은 바람직한 처세의 조건이며 감동의 조건이다.

친절한 말씨, 친절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감동을 준다. 사람 향기 가득한
친절한 사람이 돼라.



김옥림· 시와 소설, 에세이, 동화, 동시, 교양, 인문,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20년 넘게 YWCA, 도서관, 평생교육정보관, 여성회관 등 각 기관단체에서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한편, 어린이 글쓰기교실인 초우서원을 창립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시와 동화 등 글쓰기 지도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나만을 위해 보시 말고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재물가지고 보시하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큰 공덕을 얻게 된다
〈증일아함경〉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중생들의 구제를 위해 자비의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의 뜻을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칩니다.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이웃과의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 친지가 아닌 우리 곁의 어려운 형편의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맑고 향기롭게 모임에서는 1995년에 처음 시작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본모임이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사업 대상자 중 어려운 형편으로 연등을 밝히지 못하는 불교신도를 위하여 길상사 도량에 자비의 연등을 밝히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올 해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

고 있는 가운데, 고통을 해소하고 행복과 평안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히 피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자의 이름으로 자비의 등을 달며, 모여진 성금은 전액 결식후원 대상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 마음을 맑히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의 건강과 국난 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향기로운 세상과 자연을 향기롭게 하는 자비의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봉축 일정을 한달 늦춘 윤사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4월30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1만5,000개 사찰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정진에 들어가며, 한 달 여 간의 국난 극복 기도를 마무리 하는 회향식은 5월30일 전국 사찰에서 열릴 예정이며,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 연등회는 5월23일부터 24일까지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중생들을 모두 깨달음에 이루게 하겠노라’는 서원과 함께 속세로 오신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과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연등 하나 환히 밝히는 자비의 등 달기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자비의 등 동참금** : 최소 10,000원 이상
- **동참방법** : 계좌입금을 해주실 경우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주시거나 중앙사무국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입금처** : 결식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향기롭게

법정스님의 향기로운 글 & 금강경 모음전

5월 27일(수) ~ 6월 7일(일) / 길상사 내 설법전

불기2564년 부처님오신 날과 더불어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행사로 서예가 동천 엄기철의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과 금강경”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일정을 윤사월초파일(5월 30일)로 연기함으로 인해, 오는 5월 27일(수)부터 6월 7일(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주옥같은 명문장을 발췌해서 쓴 작품 40여점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금강경 대표 작품 및 계송 20여점 그리고 반야심경을 비롯한 일반 작품 20여점 등 총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추사체를 연구하며 금강경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가 동천 엄기철 선생은 평소 법정 스님의 책을 자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스님의 말씀처럼 집착을 끊어내고, 무소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은 어떤 것인지를 음미하며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금과 옥조를 통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며 추스르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펼친 “금강경 특별전”을 통해 추사체로 쓴 대작을 비롯해 70cm이내 작은 지면에 5,300여 글자를 극세필로 표현한 작품까지 다양한 금강경을 선보이며 놀라움을 안겼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대표작품을 비롯해 새롭게 시도한 목간체로 쓴 최근작 등을 비롯한 여러 금강경을 전시에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본회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관람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천 엄기철· 1955년 충청북도 충주 출신의 작가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988년 서예에 입문하여 올해로 서력 33년째로, 갤러리를 겸한 작업실 “추예랑”에서 금강경 작업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사)한국추사체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의 작품판매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맑고 향기롭게 - 법정 스님 법문 & 강연집 “좋은 말씀” 엮음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께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법회와 대중 강연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울림 큰 메시지들을 담은 31편의 미출간 법문과 강연을 엮어 5월초 출간(출판사 시공사)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송광사 뒷산 불일암과 강원도 오두막에서 은둔하며 홀로 수행하던 스님은 '생전에 밥값은 하고 가겠다'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청정한 존재로서 희구하는 올바른 길과 속인으로서 갖게 되는 욕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구도자의 삶이란 이 술한 질문들에 가장 올바른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생이 끝없지만 기어이 건지리다.'라는 원을 세웠던 지장보살과 마찬가지로 법정 스님은 개인의 정진을 넘어 중생을 구할 생각과 행(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좋은 말씀』은 혼탁하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삶의 본질을 회복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말 빛'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한 아이가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그 아이는 내 가슴속에서 계속 울음을 울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달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둘레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삶 자체도 그만큼 위축됩니다. 나와 이웃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이웃이 곧 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_「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중에서

2020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생’ 추천받습니다.

■ 구비서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
| 공통 |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
| |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 |
| | - 기타 증빙서류 | 자원봉사활동 증명서 |
| | | 각종 수상 실적 등 (해당 시) |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군필 여부 기재) (각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 | |
| - 통장사본 | | |
|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 - 수급자증명서 :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사실 수급자 | |
| 차상위계층 (해당자 택) | - 수급자 증명서 : 생계급여/의료급여/보장사실 수급자 - 자활근로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연금·수당·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 소득분위(구간) 2~8분위 | - 소득분위(구간) 통지서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부모 및 본인-해당 시) | |
| 지부 사무국 추천 시 | - 각 지부 사무국 추천 서류 | |
| 기타 | -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첨부 가능 | |

- 신청방법 ①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접속
 ↓
 ② [공지사항] > [2020년 맑고 향기롭게 - 대학생 장학사업 선발공고 클릭]
 ↓
 ③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워드, 자필 등 작성 후 서명)
 ↓
 ④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우편발송(등기) 접수



- ※ 신입생 제외 사유 : 등록금 납부기간이 1월~2월로 학교마다 상이하며 연초 장학생 모집·선발 일정 계획이 어려움
- ※ 군미필 제외 사유 : 등록금 지급 후 군 입대로 인한 지급 중지,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접수 마감** : 2020년 5월 29일 우편 소인까지
- **선정 인원** : 최대 25명
- **선정 발표** : 2020년 6월 18일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 참조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2020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4월 9일 오후 2시 길상사 내 다라니 다원에서 <2020년 정기 대의원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 안건으로 선출직 대의원 승인, 이사 9인 선출, 감사 2인 선출, 5대 이사장 호선과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의결(중앙, 대구, 경남, 광주 지부),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 심의 의결,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중앙, 대구, 경남, 광주 지부)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본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대의원 임기 만료로 인한 사전 논의와 법정 스님 10주기 추모사업을 비롯하여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과 각 지부의 다양한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한 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안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총회를 몇 차례 취소,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4월 9일(목)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는 4년의 임기가 만료된 이사 9명과 2년의 임기가 만료된 2명의 감사를 선출한 후에 4대 이사장인 덕일 스님은 길상사 주지로서 길상사의 법화와 기도에 중점을 두고자,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하시어, 총회중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전원이 불일암 임주이자 법정 불일문도회 만상좌이신 덕조 스님을 5대 이사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이사장으로 호선된 덕조 스님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진들과 함께 본회 창립 자이자 은사이신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과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이 더욱더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고, 우리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히는 사업이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으로 취임사를 대신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바쁜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시고 지부에서 먼 길 다녀가신 대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 맑고 향기롭게가 앞으로 더욱더 진흥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향기를 품어내는 연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모임이 되도록 여러 회원님과 자원봉사자님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60여 가구에 밑반찬 2가지(매주 목, 금요일)와, 김치(3월-10월 둘째 목요일)를 지원하고,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 날에는 생필품을 나누며, 연말에는 김장 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예방과 감염 방지를 위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무국에서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입니다. 요양원과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 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잠정 중단중입니다. 센터와 상의하여 참여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숲기행 상반기 중단

2020년 3월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숲기행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상반기 일정은 중단하고, 하반기 일정을 계획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숲기행 일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관련 내용을 재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시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6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봉사자들이 모여야 하는 조리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반조리 식품으로 대체하여 나

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잠정 중단중입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숲기행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기 재정 후원〉

- 시사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CMS, 계좌입금)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은 2층을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함께 활동할 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매월 초

* 사옥 관리 및 청소: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맑고 향기롭게 3층 서로배움터에서 참선 및 작은 임제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제록 이후 금강경수업이 시작 될 예정입니다.

회원, 봉사자분들, 그 외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은 신 모든 도반님들을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화, 금 오후2시

* 교재: 무비스님의 작은 임제록

• 법정 스님 책읽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 기도 | 5월 2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지장 1000일기도 1000일 회향 | 5월 4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춘계 관음기도 회향 | 5월 6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5월 7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삼천배 철야정진 | 5월 9일 | 오후 8시 | 극락전 |
| 지장재일 | 5월 10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5월 16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초하루 기도 | 5월 23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봉축 제등행렬 | 5월 23일 | 오후 6시 | 종로 네거리 |
|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 5월 30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오후 6시 | 지장전 |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설법전 |
| 청년회법회 | 매주 일요일 | 오후 3시 | 세심당 |
| 중·고등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청소년방 |
|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소강당 |
| 새신도 교육 | 매주 일요일 | 오후 1시 | 소강당 |

* 5월 길상사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침과 종단지침에 따라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안거 결제 및 백중기도 입재

● 일 시 : 6월 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 소 : 극락전

※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1개월 연기되어 음력 윤4월 15일인 6월 6일에 봉행됩니다.



불기2564년(2020년)
부처님 오신날
5월 30일(음력 윤4월 8일)

오늘을 '부처님오신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단순히 해마다 한 차례씩 있는 기념행사로 여기지 말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환경 문제가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기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환경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을 살리는 일은 국가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를 억제하고
절제의 미덕을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끝없는 욕구인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각자의 삶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지구환경의 소생과 종말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 삶이 보다 인간답게 자리 잡기를 거듭 바랍니다.

- 법정 스님 2007년 부처님오신날 법문 중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적으로 5월 5일까지 유지된 상황에, 코로나19 위기를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한달 연기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5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전례 없는 부처님오신날과 각종 봉축행사의 연기 검토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한국 불교가 국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5월 30일(토) 오전 9시부터 아가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육의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봉축 법회를 극락전에서 봉행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매년 다채롭게 진행되었던 불교문화행사와 길상음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법회가 중단되면서 연등을 접수하려 길상사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길상사에서는 전화로 연등을 접수하여 연등의 이름표를 사진 촬영하여 신도님의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신도님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모연

| 법당등(10만원) | 도량 연등(3만원) |
|-----------|------------|
| 극락전 가족등 | 도량 가족등 |
| 지장전 영가등 | 도량 영가등 |

☀️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03-875653
(입금후 증부실로 전화 확인)

☀️ 문의: 길상사. 02)3672-5945

법정 스님 수행처 사진 공모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 추모 문화사업으로 법정 스님의 대표적인 수행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작품 사진은 맑고 향기롭게&길상사 2021년도 달력과 월간 '맑고 향기롭게' 표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공모주제** 법정 스님 출가 고향 마을(전라남도 해남 우수영), 경남 통영 미래사, 경남 하동 쌍계사,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남 합천 해인사, 서울 강남 봉은사, 전남 순천 송광사&불일암, 서울 삼각산 길상사에서의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하는 모습, 지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 고즈넉한 산사의 아름다운 풍경, 사찰 전통 건축양식 및 자연경관상 등 주제에 적합한 작품사진
- **공모자격** 제한없음
- **접수기간** 2020년 8월 1일 ~ 8월 20일 까지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차후 공지**
- **공모주제**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clean94@hanmail.net)로 접수바랍니다.(1인 3작품 이내)
- **출품규격** 디지털 사진 /JPG 이미지파일로 최소 1,000만 화소 이상/크기는 3MB 이상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차후 공지**
- **주최** (사)맑고 향기롭게
- **시상 내용**

| 종류 | 인원 | 상금액 |
|------|----|-------------------|
| 대상 | 1 |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 최우수상 | 2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 우수상 | 3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장려상 | 6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 입선 | 20 | 상품권 5만원, 법정스님 사진첩 |

· 시상인원은 응모작품수 및 작품완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

2020년 맑고 향기롭게

‘제1회 대학생 장학사업’ 시행합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고교생에서 대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 장학금에서 등록금 지원만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 그리고 타 장학사업 선발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선발 인원 : 최대 25명
- 신청 자격 (가, 나, 다는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구분 | 신청자격 |
|----|---|
| 가 | ㉠ 서울 소재 대학교 법인 근교 17개 대학 우선 선정 :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배화여대 ㉡ 대구, 경남, 광주모임 추천 대학생 ㉢ 전문대 2~3학년 학생 / 일반대 2~4학년 학생 * 제외 :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학생 제외 |
| 나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 2020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 0~8분위 |
| 다 | - 군필자(여성 및 군 면제자는 해당사항 아님) |

- 장학 금액 : 장학금 소득분위(구간)별 차등지급 기준

| 소득분위(구간) | 지원금액(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0~3분위 | 200만원 |
| 4~6분위 | 150만원 |
| 7~8분위 | 50만원 |

- 접수 마감 : 2020년 5월 29일 우편 소인까지
- 선정 발표 : 2020년 6월 18일 개별 통지 및 학교로 연락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공지 참조 (www.clean94.or.kr)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